

先秦時期 蘭의 儒家 象徵 考察*

姜榮珠**

<목 차>

1. 서론
2. 君子의 표상이 된 孔子의 蘭
 - 1) 향기에 따른 교화기능
 - 2) <猗蘭操>에 의한 군자 상징 정립
3. 忠節의 표상이 된 屈原의 蘭
 - 1) <楚辭>의 蘭 의미와 상징
 - 2) <離騷>에 의한 충절 상징 정립
4. 결론

1. 서론

‘四君子’의 하나로 잘 알려진 ‘蘭’은 고결한 절조를 상징한다고 알려졌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와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는 여전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난이 하나의 문화적 기호와 상징으로 정립하게 된 데에는 선진시기 독을 제거하는 식물적 약효 및 원시 주술적 의미로부터, 공자와 굴원에 의해 군자와 충절의 의미로 전환되는 일종의 人文化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공자와 굴원은 난을 유가적 상징체로 형성시킨 주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난에 부여한 의미는 이후 후세 사람들의 공감과 찬동을 거쳐 그 의미가 심

* 본 논문은 필자의 2017년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학위논문인 <朝鮮時代 墨蘭畫 研究>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화되고 쓰임새가 넓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난은 때로 문인의 逸氣를 쏟아내는 墨蘭으로 나타나거나, 때로 궁중 공예품에 길상 의미로 등장하는 등 다양한 표현력을 갖추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사실 중의학의 본초학에서는 난을 여전히 식물적 약효가 있는 약초로 보고, 여러 가지 약효와 효능을 기록하고 있다.¹⁾ 그러나 난에 대한 문화적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을 드러냈다. 난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진 《詩經》<溱洧>에는 남녀가 난으로 구애하는 대목이 있고,²⁾ 《禮記》에는 “혼인한 여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난을 받았을 때는 시댁어른에게 고해야 한다.”³⁾는 기록을 보면, 고대 사회에 난에 대해 일정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左傳》에 의하면 춘추시대 鄭穆公은 그의 이름이 ‘蘭’이었는데 태몽과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난과 관련이 되어, 당시 사회에 난과 관련하여 일정한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요소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⁴⁾

이후 고대의 蘭譜라 일컬어지는 《楚辭》에는 난의 종류, 난의 쓰임과 난의

- 1) 漢代의 《黃帝內經素問》과 明代의 《本草綱目》에는 난이 매운맛과 단맛, 차가운 기운이 있어 소갈증에 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뱀, 지네, 두꺼비의 독을 제거하고 상서롭지 못한 것을 막아준다고 하였다. 또한 난을 삶은 물에 목욕하면 風病의 치료를 도울 수도 있고, 오랫동안 먹으면 기운을 북돋아 주고 몸을 가볍게 하며, 늙지 않게 하고 神明을 통하게 하며, 가슴의 痰과 체한 것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기운을 조절해 영양소를 고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의학 본초 및 明代 이후의 중국 본초학의 성과를 반영한 《中國本草圖鑑》<蘭草科>에는 총 74종의 난의 실제 임상 치료시 약재의 효용과 효능, 용법에 대한 연구를 수록하여 난의 약용적 기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國本草圖鑑編纂委員會 著, 東國大韓醫大本草學會 譯, 《中國本草圖鑑》<蘭草科>(驪江出版社, 2001) 참조.
- 2) 《詩經》<鄭風·溱洧> “진수와 유수는, 넘실넘실 흐르네. 선비와 여인이 난을 들고 있네.”(溱洧與, 方渙渙兮. 士與女, 方秉蘭(蘭)兮.) 젊은 남자가 난을 이성에게 주어 구애하는 행위가 오랜 역사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3) 《禮記》 卷12, <內則> 第12, 17-18, “婦人或賜之蒞蘭, 則受而獻諸姑舅.”(경인문화사, 1984), 353쪽.
- 4) 정문공(정목공의 父)의 첩은 이름이 燕姑인데, 그녀는 天帝가 그녀에게 난을 주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천체가 말하기를 “나는 伯儵로, 너의 조상이다. 이 난을 너의 아들로 삼거라. 그 난에는 國香이 있다.”라고 말했다.(鄭文公有賤妾, 曰燕姑. 夢天使與已蘭, 曰: 余爲伯儵, 余而祖也. 以是爲而子. 以蘭有國香.) 연결은 이 꿈을 문공에게 이야기하자, 문공은 곧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그녀에게 ‘한 그루의 난을 주어 증자로 삼았다. 그리하여 연결이 아들을 낳자 이름을 ‘蘭’이라 했다. 난은 왕자가 되었고 나중에 왕위를 계승하여 정목공이 되었다. 정목공이 죽을 때 ‘난이 죽었으니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左傳》<宣公三年> 참조.

생장 환경 및 무가적 길상적 상징과 유가적 상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곧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의미의 난이 전국시대 屈原(B.C.343-277)에 의해 점차 人文文化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굴원은 <九歌>나 <離騷>에서 난을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에 비유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종교적 주술적 의미에서 벗어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그 이전 춘추시대에 孔子(B.C.551-479)의 <猗蘭操>에 의해 난은 君子를 표상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공자와 굴원의 난은 유교를 숭상했던 동양사회에 가장 강렬한 君子 표상인 난의 典範으로 고착되어, 왕공·사대부들이 修己의 대상으로 삼았던 詩文書畫의 주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난이 유가의 이상가치를 반영하는 君子를 상징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임에도, 그 상징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징의 변화과정, 후대 선인들의 詩畫 예술의 주제가 되었던 蘭과 짝을 이루는 蕙, 芝, 石 그리고 상대개념으로 그려지는 荊棘, 雜草 등의 이미지의 연원과 난의 다양한 상징 연구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전통 유교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난의 유가 상징을 선진시기 공자와 굴원의 기록에서 보이는 난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근세에까지 문인들의 지향을 담은 시화의 소재로 사용된 난 상징의 연원을 파악하는 始論이 될 것이다.

2. 君子의 표상이 된 孔子의 蘭⁵⁾

식물적 약효를 바탕으로 한 원시 종교적 토렘으로 자리했던 난은 공자와 굴원의 전기에 힘입어 점차 심적인 기능과 교화의 기능이 함유된 문화텍스트를

5) 공자의 난은 漢代 <琴操> 등에서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선진시대라고 하기에는 깊이 있는 고증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공자를 기원으로 유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君子와 충절이 식물의 이미지로 기호적 의미화가 완성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공자의 난을 선진시기로 보고 논한 후 굴원의 난을 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만들어 내는 상징기호로 변모된다.⁶⁾ 난의 교화 기능과 도덕 기능은 난 문화와 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자와 굴원의 난과 관련된 이야기의 상징화이다. 즉 인간에게 직접적인 기능을 했던 식물로써의 난은 멀리까지 오래 가는 '향기'의 후각적 기호와 '척박한 환경에서 고고하게 자라나는 모양'인 시각적 기호⁷⁾를 초기 모티브로 삼아 '德'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⁸⁾ 난초과의 난이 관상과 감상용 회화로 그려지기 이전 특히 선진시기에는 난의 시각 모티브보다는 향초로 알려진 국화과 난의 향기인 후각 모티브를 중심으로 언술하는 경우가 많다.⁹⁾

1) 향기에 따른 교화기능

난의 원시적 상징과 유가적 상징의 출발은 난의 향기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식물학적으로 난의 가장 큰 특징이 '향기'에 있기 때문에 원시적 상징에서 유가적 상징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는 '난의 향기'가 강조되고 미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난향은 國香, 祖香, 王者香, 天下第一香, 香祖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송대 朱熹도 《楚辭集注》〈楚辭辯證〉에서 “대개 옛 사람들이 말한 향초〔蘭

- 6) 이와 관련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이어령 감수, 《난초》(중이나라, 2006); 周建忠, 《蘭文化》(北京: 中國農業出版社出版, 2009); 李海元, <난 토템과 詠蘭詩에 나타난 蘭의 상징 연구>, 《중국어문논총》 29(중국어문연구회, 2005); 진유애, <蘭의 문학적 상징 연구>(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강영주, <雪窓 普明의 '雪窓蘭'과 <畫蘭法> 연구>, 《미술사학연구》 288(한국미술사학회, 2015); 강영주, <朝鮮時代 墨蘭畫 研究>(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12)
- 7) 난의 형태에 따른 형상화와 교화기능은 난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송대 이후 나타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 초기 난그림 논문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다.
- 8) 《藝文類聚》 卷6, <羅含別傳>, “나함(292-372)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자 뜰에 갑자기 난초가 자라났다. 이는 그의 덕행에 감동한 것이다.”라는 기록으로 晉代에도 난은 '德'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위 편저, 구린 옮김, 《중국기호사전》(토담미디어, 2014), 309-316쪽, 재인용.
- 9) 국화과의 난은 唐代 이전까지 애호되었던 향초식물이며, 난초과의 난은 宋代부터 나타나 감상과 관상의 용도로 유행하고 그려지던 관상용 난으로 알려져 있다.

草]는 반드시 그 꽃과 잎이 모두 향기가 있고 마르거나 습기가 있거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노리개로 차고 다닐 수 있다.”¹⁰⁾라고 해 고대의 蘭蕙¹¹⁾는 향초이고 향기로 여러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흑독을 제거하는 난향의 상서로운 기능이 유가 상징으로 변화하면서 난은 공자와 굴원이고, 공자와 굴원은 난향을 지닌 군자이며, 인간의 이상가치를 실현하는 군자는 곧 國香이라 불려졌다. 때문에 난향은 군자가 지닐만한 것이고 난초의 향기를 가까이 하고 애호하는 것은 군자와 사대부의 도덕성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清代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 《易經》<繫辭>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하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과 같다.(同心之言, 其臭如蘭.)”라고 하였다. 이 때 취는 향기로, 곧 난의 맑고 강한 향기로써 사람이 한마음으로 단결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또한 三國時代 魏나라 사람인 王肅이 공자의 말을 수집 편찬한 《孔子家語》<在厄>에는 “난초와 지초는 깊은 숲속에서 자라는데, 사람이 봐주지 않는다고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군자의 道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芝蘭生于深林, 不以无人不芳.)”라고 하고, 이어 “착한 사람과 거처하면 芝草¹²⁾와 蘭草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다. 오래되어 그 향기를 더 이상 맡을 수는 없어도 곧 그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라고 하며 난향을 군자와 동일시하고 있다(표1).¹³⁾

10) 朱熹, 《楚辭集注》<楚辭辯證>: “大抵古人所謂香草, 必有花葉皆香. 而燥濕不變, 故可刈而爲佩. 若今之所謂蘭蕙, 則其花雖香. 而葉乃無氣, 其香雖美. 而質弱易萎, 皆非可刈而佩者也. 其非古人所指甚明, 但不知自何時而誤耳.”

11) 고대의 난과 헤는 형태와 용도가 다른 식물이었고, 송대 이후 헤는 난초과의 일종으로 알려졌으며, 후대에는 난혜를 ‘난’으로 통칭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12) 《香草小記》<蘭芷ひ芝蘭>(青木正兒 著)에서 “芝蘭은 靈芝와 蘭草라고 했다. 또한 모두 향이 높고 깊은 향초로 《說苑》<雜言篇>에는 ‘蘭芷’라고 되어 있는데 漢 이전의 서적에서는 모두 ‘蘭芷’, ‘蘭齒’라고 하고 魏晉 이후에는 모두 ‘芝蘭’이라 했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릿대 ‘芷’, 구릿대 ‘齒’는 모두 芝草로 볼 수 있다. 宇野精一, 《孔子家語》, 新釋漢文大系53(明治書院, 2006), 214-215쪽.

13) 이밖에도 《좌전》에서 말하기를 “난화에는 國香이 있다.(蘭有國香)”라고 하였고, <九歌>에서는 “향기가 풍기면서 나에게 끼쳐온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향기가 난화 감상에 주된 내용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록들이다. 황정견은 <書幽芳亭>에서 “선비의 재덕이 한 나라를 덮으면 國士요, 여자의 미모가 한 나라를 덮으면 國色이다. 난의 향기가 한 나라

이러한 언술은 난향을 유가들의 성품과 덕성에 비유한 것으로, 난향을 도덕적인 인간이 가까이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고, 난향과 같은 군자는 타인의 모범이 되며, 外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개인의 언행이 고고하고 소담한 미덕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현명한 군자가 어리석은 小人을 교화시키고 감화 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때문에 후대의 많은 문인들은 정치적 부침과 고난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고결한 지조와 고고한 성품을 난향에 빗대어 난을 노래하고 작화하였으며, 그것에 위로 받았다. 즉 그들이 인식한 난은 군자이고 난향은 국향이며 군자향이니, '난향이 멀리까지 풍기는 것'을 인간의 재덕이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교화시키고자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난향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2) <猗蘭操>¹⁴⁾에 의한 군자 상징 정립

공자는 난을 군자로 의인화해 유가사회에 절대적 상징으로 만든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정치를 실천에 옮길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동아시아 사상계의 覇者로 자리 잡았다. 즉 공자가 강조했던 유교이념은 체제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 통치자의 지배 이념으로 적합했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역대 왕조들이 공자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공자는 '그 실현하기 힘들 줄 알면서도 애써 실현키 위해 노력할 만한 이상적 정치와 문화와 사회관계'를 제시하고 추구했던 이상주의자였다. 이러한 유학의 종장인 공자가 최종목표로 삼았던 인간의 이상가치의 결정체가 '군자'였기에, 군자를 상징하는 특징을 지닌 식물인 소나무, 측백나무, 대나무, 난,

를 덮으면 國香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宋代 王十朋은 《点絳脣·國香蘭》詞에 "향기로운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 그 뿌리를 아득히 멀리 깊은 숲 밖으로 뻗고 있다. 국향을 바람이 전해주니, 비로소 소애(쑤과 잡초)와 다름을 알 수 있다.(芳友依依, 結根遙向深林外. 國香風遞, 始見殊蕭艾.)"고 하였다.

14) '幽蘭操'라고도 칭한다.

매화 등은 공자와 더불어 동아시아 사회에서 전통적 주제로 주목 받아왔다.

《孔子家語》〈六本〉에는 난초를 항상한 덕과 변하지 않는 지조를 지닌 군자에 비유하고 있다.

사람이 없다고 하여 향기롭지 않음이 없고, 맑고 차갑다하여 위축되지 않네. 기운은 난초와 같이 오래도록 바꾸지 말고, 마음은 난초와 같이 끝내 변하지 말라.¹⁵⁾

이어서 공자는 난초를 善인에 빗대어 칭송하기도 한다.

공자가 말하길 “내가 죽은 후에 商은 날마다 더해 갈 것이요, 賜는 날마다 덜해 갈 것이다”했다. 이에 증자가 묻기를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자 이에 공자는 “상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고 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젊은 사람을 알지 못할 때 그 아비를 봐야 하며, 잘 모르는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봐야 하며, 그 임금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신하를 봐야 하며, 그 땅을 알지 못할 때는 거기서 자라는 초목을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착한 사람과 거처하면 芝草와 蘭草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다. 오래되어 그 향기를 더 이상 맡을 수는 없어도 곧 그에 따라 변화 되는 것이 있으며,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거처하면 생선과는 가계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어 비린내는 더 이상 나지 않더라도 곧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긴다. 왜냐하면 丹을 감춰 두면 결국은 저절로 붉어지게 마련이며, 漆을 감춰 두면 결국은 저절로 검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기가 거처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삼가야 한다.”고 했다.¹⁶⁾

이 글에서 공자는 사람의 몸가짐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여섯 가지 근본을 비롯해서 사람이 일생동안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행해야

15) 《孔子家語》〈在厄〉：“不以無人而不芳，不因清寒而萎瑣。氣若蘭兮長不改，心若蘭兮終不移。”

16) 《孔子家語》〈六本〉：“孔子曰，吾死之後，則商也日益，賜也日損。曾子曰，何謂也。子曰，商也好與賢己者處，賜也好與不若己者處。不知其子視其父，不知其人視其友，不知其君視其所使，不知其地視其草木。故曰，與善人居，如入芝蘭之室，久而不聞其香，即與之化矣。與不善人居，如入鮑魚之肆，久而不聞其臭，亦與之化矣。丹之所藏者亦，漆之所藏者黑。是以君子必慎其所與處者焉。”宇野精一， 앞 책, 214-215쪽.

할 보다 바람직한 행실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⁷⁾ 공자가 말한 “선인과 사귀는 것은 마치 지란의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않더라도 이미 그것과 함께 변한 것이다.”라는 말은 난향으로써 미덕과 선행을 비유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훈도를 하고 융화 작용을 한다는 뜻인 것이다. 또 여기서 상은 子夏이고 사는 子貢을 가리킨 것인데, 실제로 자하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고, 자공은 자신과 비할 수 없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함으로써 스승 공자의 가르침대로 됐다. 때문에 공자는 교우와 환경이 인간의 품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며 ‘芝蘭之室’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의 蘭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가치가 드러난다. 공자는 초나라 昭王의 초빙에 陳과 蔡나라를 지나 초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모든 제후들의 국가통치에 맞는 경륜과 奇論을 갖춘 공자를 받아들인 초나라가 강국이 될 것을 두려워한 두 나라는 병사를 보내 공자의 초나라 행을 막고 감금하였다. 공자와 일행은 7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지쳐 쓰러지게 되었지만 공자는 더욱 강개한 얼굴로 글을 외우고 거문고를 탔다. 이때 子路가 덕과 의리를 품고 오랜 세월 노력했는데도 곤궁에 처한 연유를 항의하며 물었다. 이에 공자는 伯夷와 叔齊, 왕자 比干, 伍子胥 같은 현명한 인물들이 마지막에 불행한 일을 당했음을 예로 들며 “무릇 시대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운명이고, 사람으로서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재주에 달렸다. 군자가 학식이 넓고 지모가 깊다 할지라도 시대를 못 만난 자는 여럿 있다. 어찌 나 혼자뿐이겠느냐?”했다. 그리고 난을 예로 들어 “지초와 난초가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 사람이 없다 해서 그 향기가 나지 않는 법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도를 닦고 덕을 세우다가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고 해서 그 뜻을 바뀔서야 되겠느냐?”라고 한 것이다.

www.kci.go.kr

17) 이민수 옮김, 《孔子家語》(울유문화사, 2003), 190-195쪽.

〈표 1〉 고대의 주요 蘭 기록¹⁸⁾

시 기	저 자	원 서	내 용
B.C.12-6	孔子 엮음	《詩經》 <鄭風·溱洧>	“溱與洧，方渙渙兮。士與女，方秉蘭兮。”
春秋戰國 魯	孔子 (B.C.551-479)	<猗蘭操> [漢] 蔡邕 《琴操》 게재	“幽蘭”
春秋戰國 魯	孔子	[魏] 王肅 編 《孔子家語》 <在厄>	“芝蘭生于深林，不以无人不芳。” “氣若蘭兮長不改，心若蘭兮終不移。”
春秋戰國 魯	孔子	[魏] 王肅 編 《孔子家語》 <六本>	“與善人居，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即與之化矣。”
春秋戰國 魯	孔子	[西周] 《易經》<繫辭傳> 공자의 말 인용	“子曰，君子之道，或出或處，或默或語， 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 其臭如蘭。”
春秋戰國	辛鉞	《文子》	“蘭芷不爲莫服而不芳，君子行道， 不爲莫知而生。”
春秋戰國 魯	左丘明 (B.C.502-422 추정)	《左傳》	“鄭文公有賤妾曰燕姑，夢天使與己蘭…”
春秋戰國 越	句踐 (B.C.497-465 재위)	《越絕書》	“越絕書句踐種蘭者田。”
春秋戰國 楚	屈原 (B.C.343-278 추정)	《楚辭》 <離騷>， <九歌> 등	“余既滋蘭之九畹兮，又樹蕙之百畝。” <離騷> “紉秋蘭以爲佩。” <離騷>

《易經》<繫辭傳>에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군자의 道는 나오기도 하고, 처해 있기도 하며,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나,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고, 마음이 같은 사람의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라고 했다.¹⁹⁾ 이는 사람들 간의 교제에 있어 友情의 돈독함과 友誼를 난이 상징하는 고결한 인품에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전고에서 유래한 ‘同心之

18) 이 표는 《御定佩文齋廣群芳譜》 卷44와 주건충의 앞 책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9) 《易經》<繫辭傳>: “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

言'과 '芝蘭之交', '君子之交', '金蘭之交'와 같은 말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우의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난초가 군자를 상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공자의 전기를 함축 해 놓은 곡조인 <의란조>에서 비롯되었다.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한 거문고의 곡명을 해설한 漢代 蔡邕(133-192)의 《琴操》(공자가 작곡했다는 <의란조>의 琴曲을 해제한 것)에는 난의 군자 상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전한다.²⁰⁾

<의란조>는 공자가 지은 작품이다. 공자가 제후의 초빙을 받았으나 제후들에게 임용되지 못해 결국 衛나라에서 魯나라로 돌아갔다. 노나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깊은 계곡에서 홀로 무성하게 피어있는 향기로운 난을 발견하였다. 감탄하여 말하길 “난은 임금이 말을 향기가 있다. 지금 홀로 무성하게 피어야 되는데 잡초들과 함께 자생하고 있으니, 어진 사람이 때를 만나지 못해 필부들 무리에 섞여 있다.”라고 하였다. 수레를 멈추고 거문고와 북을 치고,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심정을 슬피하며 향기로운 난에 의탁한 것이다.²¹⁾

고사의 내용은 공자가 10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며 유세하였으나 제후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고 始終 임용되지 못해,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가는 도중에 隱谷의 난이 다른 잡풀 속에서 특히 무성한 것을 보고 수만 갈래로 감계가 일어나서 난을 현신에 비유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비유한 것이다. 공자 자신이 열국을 주유하였지만 때를 만나지 못했고, 중용을 얻지 못했으니, 마치 무성한 난초가 여러 풀들과 뒤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비열한 사람들과 나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즉 공자의 <의란조> 고사로 하여금 난은 군주가 취할 최상의 향기와 감상할 만한 최상의 자태를 지닌 화훼이며,

20) 《琴操》은 漢代 蔡邕과 晋代의 孔衍이 지었다는 설이 분분하며, 내용은 주로 각종의 금곡의 그 작자와 그 유래를 해제하였다. 《樂府詩集》,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약간의 문자 상의 차이가 있다. 현대학자 逯欽立은 이들의 각각에 대해 검토하면서 일부 작품은 후세의 위작이라 보지만 대부분 한대 지은 것으로 보고 한대 악부시로 편입시켰다. 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中華書局, 1980) 참조.

21) 郭茂倩 편, 《樂府詩集》 卷58, <琴曲歌辭> (北京: 中華書局, 1979), 839쪽. “蕩蘭操, 孔子所作. 孔子歷聘諸侯, 諸侯莫能任. 自衛反魯, 隱谷之中. 見香蘭獨茂, 喟然嘆曰 ‘蘭當爲王者香, 今乃獨茂, 與衆草爲伍.’ 乃止車, 援禁鼓之, 自傷不逢時, 託辭於香蘭云.”

동시에 어진 사람 즉 현자가 신하가 되어 군주를 보좌하여야 함을 비유한 詠物이 되었다. 이후 공자의 <의란조>에 의해 시문과 그림으로 형상화된 '空谷幽蘭'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는 고결한 선비를 상징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문인들의 난에 대한 칭송과 찬미로 표현된 시화는 바로 공자의 공곡유란을 옮겨나 이미지화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조선시대 왕공·사대부의 난에 대한 기록은 공자와 굴원의 典故가 기본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자가 만들어낸 '空谷幽蘭'의 감계 이미지는 유가적 난 상징으로 君子, 德, 國香, 君子香, 道, 金蘭契 등의 상징어휘를 만들어내며 가장 많이 애호되었다. 그들이 난에 대해 언급한 거의 모든 문장과 저작, 그림들은 모두 이러한 상징어휘를 인용하고 형상화 한 것이다(표1).

이로써 공자는 난의 무속적 코드를 군자를 상징하는 유교적 코드로 변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공자의 전고는 '난=군자'라는 상징 기호를 만들어 냈으며, 유가사상이 토대가 되었던 동아시아에 난문화의 핵심이 되었다. 이렇듯 난의 상징은 공자 이전의 원시적·무속적 상징과 공자 이후의 유가적 상징으로 나눌 수 있다.

3. 忠節의 표상이 된 屈原의 蘭

공자가 거문고 가락으로 남긴 난의 향기를 굴원은 蘭譜라고 일컬어지는 《楚辭》의 시구에 담아내었다. 난초가 곧 도와 덕을 겸비하여 궁벽한 처지에서도 뜻을 잃지 않는 군자를 상징하는 것이 공자로 인한 것이라면, 난초가 충정과 지조를 지닌 군자나 신하를 상징하는 것은 굴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충절과 절개로 삶을 마감했던 굴원의 저작에는 난에 대한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표2). 그리고 도덕과 충절의 실천적 인간상인 굴원은 인생의 환란과 부침을 겪었던 역사 속 수많은 문사들의 典範이 되었다. 그들은 굴원을 난으로 비

유하며 시문과 그림으로 승화시키고 인격화 시켜 자신들의 곤궁한 심회를 달래고 위로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왜 그가 중국 역사는 물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난'과 동일시되며 '충정'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1) 《楚辭》의 蘭 의미와 상징

《초사》 속 굴원의 대표작은 <구가>와 <이소>이고 이들 작품을 통해 당시 난의 종류, 난의 쓰임, 유가적 상징과 길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굴원의 난 인식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표2).²²⁾ 난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이 <구가>와 <이소>인데, <구가>에는 난의 무속적 요소가 다수 등장하며, <이소>에는 난의 유가적 요소와 상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²³⁾

22) 《초사》에는 굴원의 대표작인 '수심에 잠겨서'라는 <離騷>와 '아홉 노래' <九歌>를 비롯해 '하늘에 묻노라' <天問>, '아홉 가락' <九章>, '멀리 떠나 노닐며' <遠遊>, '숨어 지내며' <卜居>, '어부의 노래' <漁父>, '큰 초대' <大招>, '아홉 곡' <九辯>, '혼을 부르는' <招魂> 등이 실려 있다. <九章>은 굴원이 유배시절 자신의 감회를 적은 것을 후대인이 9편으로 엮었다고 하며, <大招>는 기원전 296년 진나라에서 병사한 초나라 懷王의 시신이 초나라로 돌아 올 때 그의 망혼을 부르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九辯>은 宋玉이 지었는데, <招魂> 역시 그가 지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七諫>은 한나라 武帝 때의 東方朔이 지었으며, <九懷>는 前漢의 王褒가 지었다. <九歎>은 前漢의 劉向이 지었으며 <九思>는 後漢의 王逸이 지었다. 이처럼 《초사》의 지은이는 각각 달라도 글 속 '蘭蕙芷'가 의미하는 바는 모두 길상적 의미이며 고결한 군자의 성품과 충절을 상징한다. 권용호 옮김, 《초사》(글항아리, 2015); 류성준 편저, 《楚辭》(문이재, 2002) 참조.

23) <이소>와 <구가>에 특히 난을 읊은 구절이 많은데 <이소>보다 <구가>의 제작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구가>는 11편으로 이루어진 祭神歌이다. 11편 가운데 10편인 '하늘의 신(황천상제, 東皇太一)', '구름의 신(雲中君)', '상수의 신(湘君)', '상수의 여신(湘夫人)', '생명의 신(大司命)', '어린이의 신(少司命)', '태양의 신(東君)', '黃河의 수신(河伯)', '사랑과 혼인의 신(山鬼)', '호국 영령들의 노래(國殤)'는 각각 하나의 신을 대상으로 지어졌지만, 마지막 '혼을 떠나보내는 노래(禮魂)'는 제사를 종결할 때 쓰이는 送神歌로 보인다. 앞서 난의 원시적 상징성으로 득남과, 벽사, 제사 등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 바로 굴원의 <구가>에는 이런 원시적인 상징성을 띠는 구절이 많다. 《초사》나 굴원 연구자들은 시의 내용으로 <구가>가 <이소> 이전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난에 대한 내용도 <구가>에 난의 원시적이며 민간 상징의 요소가 많아 난의 유교 상징인 군자나 인패

〈표 2〉 《초사》의 蘭蕙 내용

《楚辭》	난혜 관련 내용	성격
<九歌>	〈東皇太一〉, “蕙肴蒸兮蘭藉, 奠桂酒兮椒漿.”	蕙(蒸(찌다), 蘭/藉(갈다))
	〈雲中君〉, “浴蘭湯兮沐芳, 華采衣兮若英.”	蘭/浴湯(목욕)
	〈湘君〉, “薜荔柏兮蕙綢, 蓀橈兮蘭旌.”	蕙(綢(휘장), 蘭/旌(깃발))
	〈湘夫人〉, “沅有芷兮, 醴有蘭… 蓀壁兮紫壇, 播芳椒兮成堂. 桂棟兮蘭橈, 辛夷楣兮藥房. 罔薜荔兮爲帷, 擗蕙櫜兮旣張. 白玉兮爲鎮, 疏石蘭兮爲芳. 芷葺兮荷屋, 繚之兮杜衡. 合百草兮實庭, 建芳馨兮廡門.”	醴(澧)水(자생) 蘭蕙芷/(집안장식) 蘭/美人, 蕙/帶 石蘭=山蘭
	〈少司命〉, “秋蘭兮麝蕙, 羅生兮堂下. 綠葉兮素枝, 芳菲非兮襲予. 夫人自有兮美子, 蓀何以兮愁苦. 秋蘭兮青青, 綠葉兮紫莖… 荷衣兮蕙帶, 儵而來兮忽而逝.”	秋蘭 蘭/(홍룡한 자손)
	〈山鬼〉, “被石蘭兮帶杜衡, 折芳馨兮遺所思.”	石蘭/帶, 香
	〈禮魂〉, “成禮兮會鼓, 傳芭兮代舞, 姱女倡兮容與. 春蘭兮秋菊, 長無絕兮終古.”	春蘭, 秋菊/(제사)
<離騷>	“紛吾既有此內美兮, 又重之以修能.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	秋蘭/佩
	“昔三后之純粹兮, 固衆芳之所在. 雜申椒與菌桂兮, 豈維紉夫蕙茝.”	蕙茝/紉
	“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 畦留夷與揭車兮, 雜杜衡與芳芷. 冀枝葉之峻茂兮, 願埃時乎吾將刈. 雖萎絕其亦何傷兮, 哀衆芳之蕪穢… 老冉冉其將至兮, 恐脩名之不立… 擘木根以結茝兮, 貫薜荔之落蕊. 矯菌桂以紉蕙兮, 索胡繩之纚纚. 謇吾法夫前修兮, 非世俗之所服. 雖不周於今之人兮, 願依彭咸之遺則. 長太息以掩涕	蘭-)九畹, 蕙-)百畝/(재배) 蕙/紉 蕙/纚 茝/攬

의 내용이 들어간 <이소>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소>에 세상을 원망하면 서도 끝까지 바른 길을 가겠다는 굴원의 의지가 담긴 시구는 楚 懷王에게 방축된 이후의 작품으로 보인다. 서성, <<離騷>의 주석과 번역>(1), 《중국학논총》 제17집(고려대학교중국학연구소, 2004.12), 235-269쪽; <<離騷>의 주석과 번역>(2), 《중국학논총》 제19집(고려대학교중국학연구소, 2006), 183-202쪽; 서성, <九歌>의 주석과 번역>, 《중국학논총》 제16집(고려대학교중국학연구소, 2003), 193-220쪽; 주건충 역 해, 《楚辭》(南京: 鳳凰出版社, 2009), 189-210쪽 참조.

	兮，哀民生之多艱。余雖好修姱以鞿羈兮，謇朝諝而夕替。既替余以蕙纁兮，又申之以攬芷。亦余心之所善兮，雖九死其猶未悔。怨靈修之浩蕩兮，終不察夫民心。”	
	“悔相道之不察兮，延佇乎吾將反。回朕車以復路兮，及行迷之未遠。步余馬於蘭皋兮，馳椒丘且焉止息。進不入以離尤兮，退將復修吾初服。製芰荷以為衣兮，集芙蓉以為裳。不吾知其亦已兮，苟余情其信芳。高余冠之岌岌兮，長余佩之陸離。芳與澤其雜揉兮，唯昭質其猶未虧。忽反顧以遊目兮，將往觀乎四荒。佩繽紛其繁飾兮，芳菲菲其彌章。民生各有所樂兮，余獨好脩以為常。雖體解吾猶未變兮，豈余心之可懲。”	蘭/물 가(재배) 蘭 /佩
	“夫維聖哲以茂行兮，苟得用此下土。瞻前而顧後兮，相觀民之計極。夫孰非義而可用兮，孰非善而可服。阽余身而危死兮，覽余初其猶未悔。不量鑿而正柄兮，固前脩以蒞醞。曾歔歔余鬱邑兮，哀朕時之不當。攬茹蕙以掩涕兮，霑余襟之浪浪。”	茹蕙/掩涕
	“吾令帝閭開關兮，倚閭闔而望予。時曖曖其將罷兮，結幽蘭而延佇。世溷濁而不分兮，好蔽美而嫉妬。”	幽蘭/結(여다)
	“何所獨無芳草兮，爾何懷乎故宇。世幽昧以眩曜兮，孰云察余之善惡。民好惡其不同兮，惟此黨人其獨異。戶服艾以盈要兮，謂幽蘭其不可佩。覽察草木其猶未得兮，豈理美之能當。蘇糞壤以充幃兮，謂申椒其不芳。蘭芷變而不芳兮，荃蕙化而為茅。何昔日之芳草兮，今直為此蕭艾也。豈其有他故兮，莫好脩之害也。余以蘭為可恃兮，羌無實而容長。委厥美以從俗兮，苟得列乎衆芳。椒專佞以慢愒兮，櫟又欲充夫佩幃。既干進而務入兮，又何芳之能祗。固時俗之流從兮，又孰能無變化。覽椒蘭其若茲兮，又況揭車與江離。惟茲佩之可貴兮，委厥美而歷茲。芳菲菲而難虧兮，芬至今猶未沫。”	幽蘭/佩 蘭芷.荃蕙/瓊佩
<九章>	“擣木蘭以矯蕙兮”	木蘭/擣(뺀고) 蕙/矯(다지고)
	“攬大薄之芳芷兮”	芷/(따고)
	“自前世之嫉賢兮，謂蕙若其不可佩。”	蕙/佩
	“悲回風之搖蕙兮，心冤結而內傷。…蘭茝幽而獨芳。”	蕙/風.蘭茝/芳

<大招>	“菴蘭桂樹，鬱彌路只。”	菴蘭桂樹/鬱
<九辯>	“以爲君獨服此蕙兮，羌無以異於衆芳。”	蕙/服
<招魂>	“光風轉蕙，泛崇蘭些。”	光風轉蕙，泛崇蘭些 /
	“蘭膏明燭，華容備些。”	蘭/膏
	“蘭薄戶樹，瓊木離些。”	蘭/(무성한 모양)
	“蘭膏明燭，華鐙錯些。結撰至思，蘭芳假些。”	蘭/膏
	“臯蘭被徑兮斯路漸”	蘭/臯(재배)
<七諫>	“聯蕙芷以爲佩兮”	蕙芷/佩
	“荊棘聚而成林”	荊棘
<九懷>	“彷徨兮蘭宮 芷閭兮藥房 奮搖兮衆芳 茵閣兮蕙樓”	蘭芷蕙/(건물장식)
	“將息兮蘭臯，失志兮悠悠”	蘭/臯(재배)
	“皇門開兮照下土，株穢除兮蘭芷睹。”	蘭芷/
<九歎>	“懷蘭蕙與衡芷兮，行中野而散之。”	蘭蕙芷/懷
	“懷芬香而挾蕙兮，佩江蘺之菲菲。握申椒與杜若兮，冠浮雲之岷峨。登長陵而四望兮，覽芷圃之蠡蠡。游蘭臯與蕙林兮，睨玉石之寥嗟。揚精華以眩耀兮，芳鬱渥而純美。結桂樹之旖旎兮，紉荃蕙與辛夷。芳若茲而不御兮，捐林薄而苑死。”	蘭/臯, 蕙/林(재배) 蕙/懷 蕙/紉
	“懷蘭菴之芬芳兮，妒被離而折之。”	蘭菴/懷
<九思>	“懷蘭英兮把瓊若，待天明兮立躑躅。”	蘭/懷

전통적으로 역대 문인들이 읊고 그려낸 난은 공자의 <의란조>에서 영감을 얻은 공곡유란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바로 《초사》에 나오는 굴원이 재배하고 엮어 찬 난을 소재로 한 것이다.²⁴⁾

먼저 <구가>의 “혜초로 싹 고기 난초에 받치어, 향기로운 桂酒와 椒漿을 함께 올리자.”는 구절은 향기를 통한 난의 약용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며, “난초 물에 몸 씻고 구릿대에 머리 감아”라는 짓구는 主巫가 난탕에 목욕하여 사악한 기운을 제거 하고 운신에게 제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승검초 깃발에 혜초

24) 본 절의 <구가> 해석은 서성의 앞 논문을 참고하였다.

깃대, 창포 깃봉에 난초 깃머리”라는 문구를 통해 향기롭고, 독성을 제거하는 향초로 깃대를 만들고 해와 난으로 깃봉을 감쌌음을 알 수 있고, 그밖에 “계수 들보에 난초 서까래”, “혜초를 갈라 처마에 펼치고”, “石蘭을 훑어 쟈구를 만들 리.”라는 어구 등에서 난이 선진시기 일반생활에 다양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아이를 점지하고 운명을 관장하는 별인 少司命에게 올리는 노래에서는 난의 자손 번창에 관한 상징적인 어구들이 등장한다. 즉 “秋蘭과 궁궁이, 제당 아래에 나란히 피었네. 푸른 잎에 흰 꽃, 짙은 향기 내 몸에 스며드네. 사람마다 훌륭한 아이가 있거늘, 少司命 그대 어찌 근심하나. 秋蘭은 무성하고, 푸른 잎에 자줏빛 줄기라네”라는 말은 자손 번창과 득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석란(山蘭=澤蘭)으로 장식하고 두형으로 띠 두르고, 향기로운 꽃 꺾어 그대에게 보내리.”라는 어구는 패용이나 구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례를 마쳤으니 일제히 북을 치자. 꽃을 넘겨주며 번갈아 춤을 추고, 아름다운 女巫가 단아하게 노래한다. 봄 난초와 가을 국화를 바치오니, 신령들은 오래오래 영원하소서.”라는 제사를 종결하며 부르는 송신인 ‘禮魂’의 내용은 향이 강하고 오래 가는 춘란과 추국을 예로 들어 영원히 제사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난이 제례의식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표2).²⁵⁾

또한 《초사》에 보이는 난의 종류는 蘭, 石蘭(山蘭, 澤蘭), 春蘭, 푸른 잎의 자줏빛 줄기의 秋蘭, 幽蘭이며, 난초와 같이 짝을 지어 나오는 상호보완적 식물이 蕙와 芷[芝草], 계수나무(桂)이고, 대인을 뜻하는 香草인 난과 대별되는 소인을 뜻하는 식물로는 惡草인 艾[艾]과 荊과 棘²⁶⁾이 등장함으로써 굴원 당시에는 매우 다양한 난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후대 난의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쓰였던 艾, 荊, 棘 등이 이미 선진시기에 정립된 형상임을 알 수 있다.²⁷⁾

25) 여기서의 제사는 유가적 제례의식이라기 보다는 무속적 제례의식으로 보인다. 김인호는 《시경》<정풍·진유>를 淫風詩로 보고 난으로 구애하는 남녀가 이후 짝짓기 의식(놀이)을 행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김인호, 《巫와 中國文學》(민속원, 2001)

26) 荊과 棘은 모두 가시나무를 뜻하며, 荊은 땃대추나무로 대추나무와 비슷하나 가시가 나고 열매가 작고 둥근 점이 다른데, 후대 난과 함께 그려진 그림에서는 작은 대추 열매가 달린 가시나무로 표현되는 예가 있다.

다음으로 난 재배에 관해서는 九畹의 밭에서 재배하는 난과 물가에서 자라는 난, 언덕에서 자라는 난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²⁸⁾ 난의 상징으로는 유가적 상징인 굴원이 당시의 비통한 심경을 의인화해서 읊은 蘭懷(蘭心), 佩蘭, 幽蘭이 있고, 훌륭한 자손에 난을 비유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사》에는 난의 쓰임 즉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다. 특히 난의 식물적 약효에 의한 쓰임이 많은데, 난초탕에 목욕하는 蘭浴, 고기를 찢 때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갈개로 사용한 蘭藉, 난초로 만든 고약(蘭膏: 기름)과 난초 연기인 蘭煙, 난초 주머니인 蘭纒 및 집안의 장식의 난, 깃대 머리를 감싸는 蘭旌(깃머리) 등이 그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난의 쓰임은 인간 신체의 독을 없애고 동시에, 사악한 기운을 없애는 정서적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신체의 병을 치료하는 직접적 영향은 물론 인간 정신에까지 유용한 기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난의 가장 일차적인 기능은 독을 제거하여 신체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上巳節(三月三日)²⁹⁾에 비빈들 중심으로 궁정에서 행해진 행욕 중에 “난초와 헤초를 손에 잡고, 혹은 구축에 매달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물에서 상서로움을 받아들이는 즐거움이다.”³⁰⁾라는 기록을 통해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고 상서로움을 받아들이는 난의 정신기능을 살필 수 있다.

즉 난은 인체의 직접적인 약효뿐만 아니라 상서로운 기운을 주어 난으로 구

27) 이러한 다양한 난의 종류로 주건충은 고대의 난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국화와 난화과 난초과 난초로 나눌 수 있고 이는 모두 동시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초사》의 다양한 난이 이 견해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28) 여기서 굴원이 재배한 난이 유란인지, 추란인지, 춘란인지 알 수 없으나 공자의 유란과 굴원이 노래한 유란이 같은 난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29) 상사절은 3월 3일로, 1월 1일 춘절,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절처럼 달과 날수가 겹쳐져 하늘과 땅이 교감하고 사람과 만물이 소통하는吉日로 여겼으며, 이 날 남녀가 강변에서 연회를 행하고 벽사를 위해 제사와 기도를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 날에는 동진의 書聖 王羲之와 명사 謝安, 孫綽 등 42인의 修禊와 ‘曲水流觴’이 행해지기도 했는데, 그 장소도 난이 많이 자랐던 會稽 山陰 東山 蘭亭 지역이어서 상사절에 베풀어졌던 불제 및 수계는 난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周禮》<地官·媒氏>: “中春之月, 令會男女。於是時也, 奔者不禁。司男女之無夫家者而會之。” <鄭玄註>: “歲時祓除, 如今三月上巳如水上之類。”

30) 陶宗儀, 《說郛》<元氏掖庭記>: “...或執蘭蕙, 或擊球築, 謂之水上迎祥之樂。”

애하고, 난탕에 목욕함으로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며, 난 태몽을 꾸면 자손을 얻고, 아들을 갖게 되는 등 인간의 정신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난 토템은 난의 식물적 효능에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일차적 욕구가 투영되어 태몽 및 출생, 작명과 득남 등을 상징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난의 이와 같은 원시적 상징은 난의 효능, 형태, 이름, 발음 등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가 변화 발전하면서 상층문화는 물론 민간과 서민 생활에 자손, 다산, 득남, 長壽, 뛰어난 인재 등과 관련된 여러 길상적 의미와 상징성을 갖게 된다.³¹⁾

이렇듯 전통적으로 유형·무형적 무속 기능을 가지게 된 난은 점차 유가의 중요 정신인 도덕 기능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초사》에 난을 엮어 허리에 차는〔蘭珮〕 인패는 도와 덕을 실천하는 군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왕조의 경축 예식에 대부분이 난을 손에 드는 의식, “《尚書》〈秦書〉 글을 아릴 때 향기를 품고 난초를 잡고 했다.”는 것은 모두 禮俗의 연장이며 난의 무속기능을 넘어선 도덕적 인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유가 기능으로의 전이라고 이를 수 있겠다. 아울러 《초사》에서는 난이 제사에 蕙로 쥘 고기를 받치는 藉의 역할을 했다고 하고, 또한 春蘭과 秋菊을 바친다고 하였다. 즉 <九歌> ‘禮魂’에는 매년 “봄에서 가을까지 신령들에게 제사를 영원히 올린다.”고 했는데 이는 반대로 신령들이 언제까지나 인간에게 공덕을 베풀어달라는 소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宋代 《楚詞補注》에는 “제사를 지낼 때 봄에는 춘란, 가을에는 국화를 사용한다. 춘란의 향기가 길게 이어지듯이 예전의 도를 계승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³²⁾라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진하고 긴 난향을 유가 정신을 계승해 줄 매개체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사》의 난 관련 기록들은 전국시대부터 난의 쓰임이 다양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난의 기능이 무속적이며 종교적인 토템 기능에서 점점 심리적 기능인 유가의 기능과 상징을 겸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보인다.

31) 강영주, 앞 학위논문, 14-35쪽.

32) 洪興祖, 《楚詞補注》: “春蘭兮秋菊, 長無絕兮終古. 言春祠以蘭, 秋祠以菊, 爲芬芳長相, 繼承無絕於終古之道也.”

2) <離騷>에 의한 忠節 상징 정립

굴원은 충과 의와 절조가 뺏속까지 새겨진 인물이다. 그는 전국시대 楚나라의 三姓(屈·景·昭) 귀족의 하나로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26세에 懷王의 신임을 얻어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가 楚王 일족으로 박학다식하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외교술이 능란하여 중요한 국사를 담당하게 되자, 주변의 시기와 비방을 받게 되었다. 그는 주변의 모략을 받아 두 번씩이나 江南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한 뒤 죽어서 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자살로써 諫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長沙의 汨羅水에 투신하여 죽음으로 충정의 아이콘이 되었다.³³⁾ 끈고 굳은 절개로 충정의 상징이 된 굴원, 그가 심어 재배하고 엮어 차고, 읊었던 난초와 헤초도 마찬가지로 충정의 상징이 되었다.

《초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는 자전적인 서정 長詩의 요소를 지닌 굴원의 대표작이다.³⁴⁾ 이는 총 8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8단락을 제외한 7단락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난을 읊고 있다.³⁵⁾

먼저 자서전의 필법으로 자신의 출신을 서술하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표현한 1단락에서는 자신은 아름다운 성품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가을 난초를 엮어 허리에 둘렀다고 하며 자신의 고결한 성품을 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내면의 아름다운 성품이 이처럼 많은데, 여기에 덧붙여 뛰어난 능력 갖추었네.
궁궁이와 구릿대를 몸에 걸치고, 가을 난초를 엮어 허리에 둘렀네.³⁶⁾

2단락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관심과 입장을 천명한 후 군왕을 모시지 않게

33) 《史記》에는 굴원의 絶命의 노래인 〈懷沙賦〉에 이와 같은 결연한 심정을 담고 있다.

34) <이소>의 뜻에 대해 司馬遷은 “근심을 만나다.(離騷者, 猶離憂也.)”라는 뜻과 비슷하다고 했으며 王逸은 “離는 別이고, 騷는 愁이다.”고 해 ‘방축된 데서 오는 시름(이별과 근심)’이란 뜻으로 보았다. 권용호 역, 앞 책, <離騷> 편 참조.

35) 본 절의 <이소> 해석은 서정의 앞 논문을 참조하였다.

36) 《楚辭》<離騷>: “紛吾既有此內美兮, 又重之以修能.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

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향기로운 혜초를 역대의 세 제왕의 덕행에 비유하고 있다.

고대의 세 제왕은 덕행이 아름다워, 주위에는 여러 가지 향기들이 있었네. 산 초와 계수마저 가지고 있었으니, 어찌 혜초와 구릿대뿐이었으리.³⁷⁾

3단락은 자신의 정치 경력 중의 사건들을 들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이 구절은 난과 관련된 굴원의 고사 중 가장 유명하여 공자의 <의란조>에 빗댈 수 있는 구절이다. 때문에 고래의 시구에서 ‘九畹과 百畝’가 등장하면 굴원의 충절과 고결한 삶을 난해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九畹의 땅에 난초를 재배하고, 또 혜초도 百畝의 땅에 심었네... 비록 시 들어도 슬프지는 않으나, 슬픈 것은 못 香草가 惡草로 변하는 것...향초의 뿌리로 구릿대를 휘감아, 승검초의 첫 꽃잎들을 엮고, 계화를 들어 혜초에 매고...내가 파면된 것은 혜초를 돌렸기 때문이다...³⁸⁾

굴원은 이 글에서 자신과 黨人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였다. 黨人들은 이기심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남을 배척했지만, 굴원은 아름다운 이름과 이상을 위해서였다. 굴원은 고대 인물들과 지금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행동 준칙을 고대의 이상적인 인물들에게서 찾았다. 또 그는 자신이 왜 추방되고 배제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했다. 군왕의 불찰과 세상의 비방과 함께 자신이 세속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한다. 즉 인간의 각기 다른 본성을 香草와 惡草에 비유하고, 자신은 향초를 두르고 덕행을 행하였음에도 비방당하고 파면당하여 슬프지만 혜초 및 구릿대 즉 향초를 두르고 있어서 즐겁다고 하며 다시 비록 아홉 번 죽는다 해도 후회 않으리라고 굳은

37) 《楚辭》<離騷>：“昔三后之純粹兮，固衆芳之所在。雜申椒與菌桂兮，豈維初夫蕙蒞。”

38) 《楚辭》<離騷>：“余既滋蘭之九畹兮，又樹蕙之百畝。雖萎絕其亦何傷兮，哀衆芳之蕪穢……擘木根以結芷兮，貫薛荔之落蕊。矯菌桂以初蕙兮……既替余以蕙纒兮。”

결의를 다진다. 굴원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노래한 3문단은 특히 시를 읽는 이마저 굴원의 마음과 일치되어 비통하고 애절한 심경을 경험하게 한다.

4단락은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퇴와 추구 사이에서 방황한다.

난초 핀 물가에서 말을 거닐게 하고, 산초나무 언덕에서 말 타다가 잠시 쉬네.
벼슬에 나갔으나 죄만 얻었으니, 물러나 벼슬 전의 초심을 다듬으리. 연잎을 엮어
어 윗옷을 만들고, 연꽃을 모아 치마를 만드네. 나를 몰라주어도 그뿐인 것을, 내
마음이 진실로 맑고 향기롭도다.³⁹⁾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은거를 생각하며 변함없이 난초, 연잎, 연꽃 등의 향기에 빚대어 자신의 고결한 성품이 결코 변치 않을 것임을 재차 다짐한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주제를 더 전개한 내용이다. 5단락은 누나인 女嬃의 권고를 서술하였다.

오직 성인과 철인만이 그 덕행으로 해서, 비로소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오. 前代를 바라보고 지금을 돌아보니, 인간의 최상의 법칙을 살필 수 있소. 義가 아닌데 어찌 행할 수 있으며, 善이 아닌데 어찌 따를 수 있으리오. 내 마음은 답답하여 거둬 흐느끼고,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슬퍼하네. 부드러운 혜초로 눈물을 흠치자니, 눈물은 오히려 옷깃을 적시며 철철 흐르네.⁴⁰⁾

여기서 굴원은 군자가 갖추고 실천해야 할 덕행과 의와 선을 노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실천했던 현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흐느끼고 슬퍼하며 혜초로 눈물을 흠친다고 하여 이는 정녕 바른길이고 자신이 가야하는 길이지만 끝이 있음을 알기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심경을 보여주고 있다.

39) 《楚辭》〈離騷〉：“步余馬於蘭皋兮，馳椒丘且焉止息。進不入以離尤兮，退將復脩吾初服。製芰荷以爲衣兮，集芙蓉以爲裳。不吾知其亦已兮，苟余情其信芳。”

40) 《楚辭》〈離騷〉：“夫維聖哲以茂行兮，苟得用此下土。瞻前而顧後兮，相觀民之計極。夫孰非義而可用兮，孰非善而可服。曾歔歔余鬱邑兮，哀朕時之不當。攬茹蕙以掩涕兮，霑余襟之浪浪。”

제 6단락은 신화와 역사 등 환상의 세계 속에서 열렬히 사랑을 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의 추구하고 그 좌절을 상징하였다.

나는 天帝의 수문장에게 문을 열라 명하나, 그는 天門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기만 하네. 날은 어둑어둑하여 하루가 저무려 하는데, 난초를 엮어두고 천문 앞에서 배회하네. 세상은 혼탁하여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의 미덕을 질투하기 좋아하네.⁴¹⁾

제 7단락은 극도의 고통과 복잡한 심리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사람들은 허리 가득 쭉을 차고 있으면서, 오히려 幽蘭은 패용하지 말라고 한다오. 풀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니, 옥에 대해 어찌 평가할 수 있겠소. 향주머니에 똥과 흙을 가득 채우면서, 도리어 申椒는 향기롭지 않다고 말한다오. 난초와 구릿대는 향기를 잃고, 전초와 혜초는 띠풀로 변하였네. 어이하여 예전에 향기롭던 풀들이, 지금은 억새와 대쭉이 되었는가. 여기에 어찌 다른 이유가 있으리오. 고결한 성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세, 나는 본래 난초만은 믿고 있었는데, 실속 없이 외모만 번지르르 되었구나...산초와 난초를 보아도 변절하였거늘, 하물며 이들보다 못한 계차와 강리임에랴. 오직 나의 패식이 귀중하나, 그 미덕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지금에 이르렀네. 나의 향기는 농밀하여 흩어지지 않으며, 나의 향내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네.⁴²⁾

이 글에서 굴원은 쭉과 유란, 풀과 옥, 향주머니와 똥주머니 등을 비교하며 선과 악, 군자와 소인 등의 상반된 인격과 품성을 지닌 인간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 향초 주머니로 다른 잡풀들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며 변절하거나 덕이 없는 인물의 지조 없음을 나무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향기는

41) 《楚辭》<離騷>：“吾令帝閭開關兮，倚閭闈而望予。時曖曖其將罷兮，結幽蘭而延佇。世溷濁而不分兮，好蔽美而嫉妬。”

42) 《楚辭》<離騷>：“戶服艾以盈要兮，謂幽蘭其不可佩。覽察草木其猶未得兮，豈理美之能當。蘇糞壤以充幃兮，謂申椒其不芳。蘭芷變而不芳兮，荃蕙化而爲茅。何昔日之芳草兮，今直爲此蕭艾也。豈其有他故兮，莫好脩之害也。余以蘭爲可恃兮，羌無實而容長。…覽椒蘭其若茲兮，又況揭車與江離。惟茲佩之可貴兮，委厥美而歷茲。芳菲菲而難虧兮，芬至今猶未沫。”

흠어지지 않고 결코 자신의 믿음과 충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굴원에게 난은 곧 군자이며, 충절이고,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이소>에는 충절로 표상화 된 난의 내용이 가득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난에 대한 주된 내용은 난을 몸에 佩用한다는 것인데, 이는 나쁜 기운을 막는 식물적 효용성을 바탕으로 한 무속적 상징을 갖고 있는 난을 덕에 비유하여 학문과 덕행을 닦아온 고결함을 지닌 인간을 상징하는 유가의 난으로 의미와 상징을 변화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난이 선진시기 독을 제거하는 식물적 약효 및 원시 주술적 의미로부터, 공자와 굴원에 의해 군자와 충절의 의미로 전환되는 일종의 人文化 과정을 거쳤음에 주목하였다. 이로써 선진시기 난을 유가적 상징체로 형성시킨 주요한 인물인 공자와 굴원의 저작에 등장하는 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상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고대 약효와 길상의 의미였던 난은 송대 이후 난의 시각적 모티프가 화가의 그림 주제가 된 반면, 선진시기에는 '蘭香'의 후각적 모티프가 교화의 도구로 인식되었던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의란조>를 비롯한 공자가 남긴 여러 언술로 난은 공자에 의해 '同心之言'과 '芝蘭之交', '君子之交', '金蘭之交'와 같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우의를 상징하는 유교상징 어휘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空谷幽蘭'의 모티프는 척박한 환경에서 홀로 고고하게 자신의 인품을 발현하여 혼탁한 세상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군자'를 표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굴원이 지은 《초사》<구가>에 등장하는 난의 종류와 쓰임, 재배 및 길상적이며 기복적인 성격과 다양한 상징의미를 알아보았으며, 굴원의 대

표작인 <이소>에 의해 충절의 상징으로 정립된 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첫째, 공자는 난을 득남, 벽사, 구애 등과 같은 원시 종교적 상징에서 <의란조>를 통해 유교의 이념적인 상징으로 변화시켜 '군자'라는 표상을 만들어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굴원은 그의 영화 같은 삶과 예술적 상상력과 감동을 주는 <구가>와 <이소>를 통해 난을 미학적인 상징 범주로 옮겨 놓았으며, 난의 기복적이며 길상적인 기능을 고결한 인간의 충절과 품격의 상징으로 변화시킨 인물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핵심 인물인 공자와 굴원은 선진시기 유가 난문화의 전범으로 고착되며, 동아시아 왕공·사대부의 修己 대상이었던 시화예술의 주요 題材가 된 것이다.

< 參考文獻 >

蘇軾, 《蘇軾全集》<題楊次公春蘭>

《御定佩文齋廣群芳譜》

夏文彥, 《圖繪寶鑑》 卷59, 《畫史叢書》 제2편,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2.

朱克柔, 《第一香筆記》 卷2

朱熹, 《楚辭集注》<楚辭辯證>

宇野精一, 《孔子家語》, 新釋漢文大系53, 明治書院, 2006.

《周禮》<春官宗伯>

黃庭堅, 《山谷集》

楊淦清, <《楚辭》 蘭蕙考>, 《蘭》 第2期, 1994. 2.

周建忠, <神奇的夢幻精緻的花朵>, 《蘭文化》, 北京: 中國農業出版社出版, 2009.

沈雅鈞, <臺灣原生蘭科植物—綫草>, 《桃園區農業專訊》 86期, 中華民國行政院, 2013.

《禮記》 卷12, <內則> 第12, 경인문화사, 1984.

김인호, 《巫와 中國文學》, 민속원, 2001.

권용호 옮김, 《초사》, 글항아리, 2015.

宋明鎬 譯, 《禮記集說》, 높은밭, 2006.

이기동 역해, 《시경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 이기동 역해,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 이민수 옮김, 《孔子家語》, 을유문화사, 2003.
- 이스위 편저, 구린 옮김, 《중국기호사전》, 토담미디어, 2014.
- 이어령 감수, 《난초》, 종이나라, 2006.
- 강영주, <雪窓 普明의 '雪窓蘭과 <畫蘭法> 연구>, 《미술사학연구》 288, 한국미술사학회, 2015.
- 강영주, <朝鮮時代 墨蘭畫 研究>,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12.
- 서 성, <<九歌>의 주석과 번역>, 《중국학논총》 제16집, 고려대학교중국학연구소, 2003.
- 서 성, <<離騷>의 주석과 번역>(1)·(2), 《중국학논총》 17·19, 고려대학교중국학연구소, 2004·2006.
- 李海元, <난 토렘과 詠蘭詩에 나타난 蘭의 상징 연구>, 《중국어문논총》 29, 중국어문연구회, 2005.
- 진유애, <蘭의 문학적 상징 연구>,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fucian Symbol of Orchids in the Pre-Qin Period

Kang, Yeong-ju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and symbol of Orchids in the works of Pre-Qin period(先秦時期) confucian Confucius(孔子) and Quan(屈原). The ancient Orchids helped the human body with the drug that removes the poison, and the belief that the drug will remove the evil and give the auspiciousness increases, and the function is strengthened. And Orchids become a confucian symbol by Confucius and Quan as they affect human emotions and aesthetics. Traditionally, the orchid served as a theme for poetry and paintings practiced

and appreciated by people of various social classes ranging from the king to the royal family, the gentry, the middle class, state-hired painters, Buddhist monks and gisaeng. The gentry, the major creators of orchids, aimed to be 'Gentlemen (君子)', the ideal personality of their Confucian philosophy. Above all, they tried to follow the example of Confucius and Qu Yuan, who were the eminent figures of Confucianism pursuing the Principle of Heaven(道) and the Virtue(德). The gentry personified and internalized orchids embodying the spirit of the plant that they tried to achieve and sought comfort in it.

As Confucianism became the ruling ideology of nation, orchids acquired a Confucian meaning to signify morality,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Confucius' Orchids standing for Gentleman, Qu Yuan's Orchids for fidelity orchids materializing the image of loyalty(忠). Verses on orchids(猗蘭操) from the Analects rendered orchid-related symbol and metaphor like gentleman, 'geumnanjigyo(金蘭之交)', and 'gonggokyuran(空谷幽蘭)'. Li Sao(離騷) and Nine Songs(九歌) by Qu Yuan from Verses of Chu(楚辭) gives a hint on the status of growing orchids and the symbol of loyalty and Chopae(紉佩).

Key words: Pre-Qin period(先秦時期), Orchid(蘭), Ink Orchid Painting(墨蘭畫), Gentlemen(君子), Confucius(孔子), Qu Yuan(屈原), Li Sao(離騷), Verses on Orchids(猗蘭操), Verses of Chu(楚辭), Nine Songs(九歌)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10.31.	2017.11.28.	2017.12.01.	2017.12.16.	2017.12.31.